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80>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⑥

# 하나가 공하면 십법계가 모두 공하다

故經云 前二種爲方便道 因是二空觀 得入中道第一義觀 雙照二諦 心心寂滅 自然流入 薩婆若海 若菩薩欲於一念中具足一切佛法 應修息二邊分別止 行於中道正觀

앞에서는 단지 공관만 닦으면 선정에 치우쳐 중도를 증득하지 못하고, 가관만 닦으면 지혜에 치우쳐 중도를 증득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밝혔다.

따라서 반드시 지관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여 중도를 증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앞에서 두 종류는 방편인데 이공관(二空觀)으로 인해서 중도 제일의제관(中道第一義諦觀)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였다.

이공은 아공과 법공이다. 범부 중생이 오온법에서 주재자를 억지로 세우는 것을 아집이라고 한다. 가령 색수상행식 등 다섯 법을 추구해본다면 오온법에는 자성이라고는 없어 아의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아공이라고 명칭한다.

오온법을 실재했다고 헤아리는 것을 법집이라고 한다. 가령 이 오온법은 허깨비와 같다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 모두는 인연을 따라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도 역시 자성이 없는 법공이라고 한다.

공관을 닦으면 인공을 증득하고 가관을 닦으면 법공을 증득하게 된다. 만일 중도제일의관을 닦는다면 아집과 법집을 동시에 버리게 되어 공이라는 개념까지도 제거된다. 공과 집착을 둘 다 잊게 된다면 공공(空空)을 증득하게 된다.

진속이제를 씀으로 관조하여 진제 공과 속제 유를 떠나지 않는 것을 중도관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과 유를 떠나 버린 뒤에 따르는 중도가 있다면 이는 단지 중도일 뿐이다. 이를 비유하면 마치 구름 밖에서 달을 보는 것과 같아서 원만한 중도라고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중도는 반드시 진속이제를 씀으로 관조하여 양쪽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양쪽에 상착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분명한 일념가운데 삼천성상(三千性相)과 백계천여(百千界如)를 갖추어 일념마다 공가중 아님이 없다. 가령 일념이 있다고

말한다면 일념자체를 끝내 얻지 못하며 또 일념을 공이라고 한다면 삼천성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념이 일어날 때에 일념이 일어나는 곳을 관조해보면 그 실체를 끝내 얻지 못하므로 공의 의미가 되며, 동시에 일념이 일어나는 곳에 현상세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을 가의미라고 한다.

일념가운데 세계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 일어난 실체를 끝내 얻지 못하므로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다. 따라서 공과 가의 이변을 씀으로 떠난 자리에서 바로 공이고 바로 가여서 이변을 씀으로 관조하면 바로 중도의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공관으로 인해서

## 백천삼매가 마음의 근원에 함께 있으며 항하사 공덕이 동일하게 마음으로 귀결

중도제일의제관으로 들어가면 마음마다 적멸하여 염염이 상주하고 공과 유가 두 모습이 아니라서 진제로서의 부정과 속제로서의 긍정이 동시에서 자연히 생각 생각이 살아야해(薩婆若海)로 흘러 들어간다.

살바이는 지혜라는 뜻인데, 생각 생각이 모든 부처님의 대지혜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보살이 일념가운데 일체불법을 갖추고자 한다면 우리의 분명한 일념가운데 모든 법을 갖추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

이를 두고 백천삼매가 마음의 근원에 함께 있으며 항하사 공덕이 마음으로 동일하게 귀결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한 법도 자기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법마다 자기마음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중생은 미혹하여 자기 마음 여래의 오묘한 능력이 번뇌에 덮여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보살이 일념가운데서 일체 불법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식이변분별지(息二邊分別止)를 닦고 중도정관(中道正觀)을 실천해야만 한다.

식이변분별지를 설명해본다면 이번은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과 유, 아와 무아, 상과 무상, 대와 소, 높고 낮음, 길고 짧음, 친근하고 소원한 것 등인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이번으로서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법은 단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서로가 의존하는 법은 모두가 상대적인 비교를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크고 작음이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해 말해본다면 큰 것은 진실로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으로 인해서 크다는 것을 보며, 작은

것은 진실하게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 인해서 작은 것을 보는 것이다.

지금은 일체 경계를 마주하면서 상대적인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공과 유에 대한 집착을 쉬어 어느 한 쪽 법에 치우치지 않으므로 생각을 실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기뻐하지도 않아 어느 한쪽을 그친다는 생각이 없이 이번이 나아간 상태에서 바로 중도이다.

또는 이번이 없는데 무엇을 그치겠는가. 대체로 그치기를 기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불지(不止)라고도 말한다. 이것이 최고의 공부이며 식이변분별지이다.

올바르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공과 유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과 유를 떠나지 않고 이를 부정한다면 둘 다 부정하고 긍정한다면 둘 다 긍정하여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중도정관을 실천한다"라고 말하였다.

云何修正觀 若體知心性非眞非假 息緣眞假之心 名之爲正 諦觀心性非空非假 而不壞空假之法 若能如是照了 則於心性通達中道 圓照二諦 若能於自心見中道二諦 則見一切諸法中道二諦 亦不取中道二諦 以決定性不可得故 是名中道正觀

무엇을 정관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정관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전일념이 유도 아니지만 공도 아닌 것을 관조하는 것을 말한다.

진실이 아니면 진실한 공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면 오묘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이라고 인식하고 거짓이라고 인식하는 마음을 쉬어야만 이것이 오묘한 삼매로서 진제법문이다.

이것을 두고 하나가 공하면 일체가 공하여 십법계가 동시에 공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한다. 우리의 심성을 진실하게 관찰한다면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므로 공과 가를 파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차별상이 완연하게 드러나 공이면서도 진실한 공이 아니다.

이처럼 공하면서 공이 아닌 상태를 속제법문이라고 한다. 속제는 유에 속하고 진제는 공에 속한다. 공을 취하지도 않고 역시 유에 집착도 하지 않아서 밖으로는 경계에 머물지 않고 안으로는 지혜에 머물지도 않아 지혜밖에 경계가 없고 경계밖에 지혜가 없음을 명료하게 통달하여 경계와 지혜를 씀으로 있는다면 진제와 속제를 둘 다 초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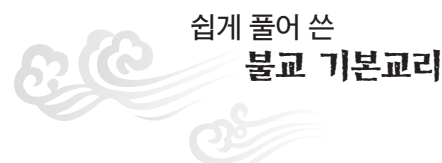
이와 같이 관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심성에서 중도를 통달하게 된다. 이처럼 진속이제를 원만하게 관조하여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분별한다 할지라도 항상 자체는 공적하고, 항상 자체는 공적하다 할지라도 분별인연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를 두고 중도정관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테크닉 제작 보급

동행학원은 지상강의에 연계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현대스지관)와 호법유사의 비만사에서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유식학의 신유식테크닉을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s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 수행위차(修行位次)

(3) 통달위(通達位)

십지(十地) 가운데 초지입심(初地入心)을 견도위라고 하는데, 보살이 이 경지에 마음을 머물면 이를 통달위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수행위를 지(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수행이 의지(依持)가 되어 올바른 지혜가 생장(生長)함이 마치 대지를 의지해서 만물이 자라는 이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생(生)은 최초로 일어난 지혜이며, 장(長)은 이미 일어난 지혜가 더욱 자리남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지(地)라고 합니다.

이 수행지는 심천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심천의 단계를 따라서 십지(十地)를 시설하게 된 것입니다.

지랑위와 가행위는 모두 지전(地前)이라고 하며, 한번 초지로 진입하면 이로부터 등지(登地)라고 하기 때문에 지전의 삼현초기보살과 등지 이후의 십성(十聖), 또는 십지보살을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또 이 수행지는 매지마다 입심(入心), 주심(住心), 출심(出心)의 세 단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견도위는 초지의 '입심'에 해당됩니다.

견도위에서는 비로소 분별없이 여실하게 아는 근본지(根本智)를 증득하게 됩니다. 이는 무분별지(無分別智), 즉 상대적인 분별이 없이 일어나는 정지(正智)라고 합니다.

이 근본지가 일어날 때 즉시 진여를 증득하여 근본지와 진여의 이치, 즉 주관적인 지혜와 깨달음 대상인 진여의 이치가 평등평등(平等平等)하며 주관인식과 인식대상의 차별상을 모두 함께 떠받칩니다. 능취지(能取智)와 소취진여상(所取眞如相)에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평등'이라고 합니다.

능취지와 소취상(所取相)은 허망한 분별심의 모습이며, 이는 상대적인 소득심이 있으므로 분별 회문이 나타납니다. 상대적인 소득심이 있으면 평등한 진여의 이치와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고 그것은 단지 상대관점에서 일어나는 회문일 뿐입니다.

무분별지는 진여의 세계를 상대적으로 얻었다는 소득심(所得心)이라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주관적인 집착심도 없이 그윽하게 진여평등의 이치를 증오하게 됩니다. 이를 받아심경에서 '무지역무득이무소득고(無智亦無得以無所得故)'라고 합니다.

근본지가 일어나면 즉시 그 근본지를 의지해서 후득지(後得智)가 일어나 분별없이 아는 지혜를 일으키면서 현상사법을 미혹의 오류가 없이 분명하게 관조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에 긴 때가 벗겨지면 그 즉시 모든 물상이 환하게 나타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정리=張如舟

#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개강일: 4월 15일(수요일) ▶ 교육 기간: 6주(24시간) ▶ 모집 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100만원

### 특기 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에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초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 특별상담

- 불자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가출, 습관, 성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비비밀보장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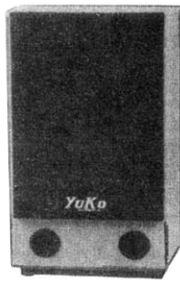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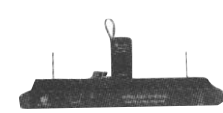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